12월 제주, 5년 연속 적설량 '제로'

지난해 마지막 날 첫눈 관측됐지만 쌓이지 않아
찬공기 몰고오는 시베리아 고기압 강도 약한 탓

제주지역 12월 기준 적설량이 5년 연속 '0'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최심신적설 합계는 0.3㎝로, 관측 이래 역대 12월 가운데 가장 적었다. 이전 기록은 1998년 기록한 0.6㎝다.

최심신적설은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 중 가장 많이 쌓인 곳의 깊이를 뜻한다.

제주지역은 12월 기준으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최심신적설 값이 0㎝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주뿐만 아니라 인천, 대전, 포항,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여수에서도 12월 최심신적설 값이 '0'이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해안가에서 그해 첫눈이 공식적으로 관측됐지만 내린 눈의 양이 매우 적다보니 적설량으로 나타낼 만큼 쌓이지 않았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첫눈 관측시점도 전년보다 24일, 평년(12월8일)보다 23일 늦었다. 만약 지난해 마지막 날 눈이 관측되지 않았다면 제주는 61년 만에 눈 없는 12월을 맞이할 뻔했다.

기상청은 이처럼 눈을 보기 힘들어진 이유로 평소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를 꼽았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의 강수량은 26.3㎜로, 평년(16.6~28.5㎜) 수준을 보였지만 기온은 2.8℃로 평년(1.5℃)보다 1.3℃ 높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높았던 이유에 대해 "지난달 중순 이후 북쪽의 찬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몰고 오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강도가 약했다"면서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도 예년보다 1℃ 정도 높은 영향으로 우리나라 남동쪽에 따뜻하고 습한 고기압이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1937년 1월부터 최심신적설을 관측하기 시작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지난달 22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해상에서 죽은채 발견된 아파트 4층 높이의 참고래에 대한 부검이 지난 3일 오전 한림항에서 진행됐다. 연합뉴스

길이 12.6m·무게 12t 참고래 부검 '화제'

뱃속서 1m 낚싯줄 등 발견… 연구진 "직접 사인 아니"

폐사원인 분석 한달 소요

길이 10m 이상 되는 대형 고래에 대한 부검이 국내 처음으로 제주지역에서 이뤄졌다.

제주대학교와 서울대, 인하대, 한양대, 충남대, 세계자연기금(WWF) 등에 소속한 고래 전문가 30여명은 지난 3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대형 고래 부검을 시작했다. 부검은 폐사 원인을 규명하고, 대형고래 연구 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 고래는 지난 22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40㎞ 바다에서 죽은 상태로 발견됐다.

길이 12.6m, 둘레 5.8m, 무게 12t에 달하는 이 고래는 당초 밍크고래로 추정됐지만 DNA분석 결과 보호종인 참고래로 판명났다. 또 이 고래는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된 어린 새끼인 것으로 추정된다.

부검 결과 고래 뱃속에서는 1m 길이 낚싯줄과 그물 조각이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아닌 것으로 연구진은 보고 있다.

참고래의 정확한 폐사 원인을 분석하는 데까지는 한달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종인 참고래는 가공과 유통, 보관 등을 할 수 없다. 부검을 마친 참고래 뼈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기증돼 박제 형태로 전시될 예정이며 부검에서 확보한 자료는 대형 고래를 연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늘어난다

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

올해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구매한도에 관계없이 주류와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6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는 연 6회, 1회 600달러까지 면세물품 구매한도가 정해진 가운데 1ℓ이하, 400달러 이하 주류 1병과 담배 1보루는 구매한도에서 제외하도록 별도 면세물품 근거를 마련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사후면세점에서는 즉시환급 한도가 기존 건당 30만원, 1인당 100만원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줬던 것을 건당 50만원, 총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의 JDC면세점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등 4곳이 있다. 김경섭기자

겨울바다 입수 4일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배추김치-돼지·소고기 허위표시 '여전'

원산지 표시 위반 총 적발건의 60%… 농관원 설 대비 일제단속

지속적인 단속에도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큰 배추김치를 비롯해 돼지고기와 소고기 품목에 대한 일부 상인들의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제주농관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원산지표시제 및 이력표시제를 위반한 품목 가운데 1~3위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소고기 순으로 나왔다.

제주농관원은 지난해 위반 업소 98개소(원산지 78·이력제 20)를 적발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0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업체 28개소와 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체 2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443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3년간 위반 업소는 지속적·집중적인 단속에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상위 원산지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 40건(거짓 38·미표시 2), 돼지고기 10건(거짓 7·미표시 3), 소고기 9건(거짓 7·미표시 2) 등이다. 2018년의 경우도 배추김치 22건(거짓 19·미표시 3), 돼지고기 19건(거짓 11·미표시 8), 소고기 10건(거짓 5·미표시 5) 등이다. 2017년도는 배추김치 26건(거짓 23·미표시 3), 돼지고기 15건(거짓 10·미표시 5), 소고기 4건(거짓 2·미표시 2) 등의 순이다.

이처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미표시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일부 상인들의 좀 더 큰 이익을 내기 위한 행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농관원은 6일부터 23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표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위주로 집중된다. 백금탁기자

하루새 보행자 2명 교통사고로 숨져

하루새 행인 2명이 잇따라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7시2분쯤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동명사거리 북쪽 도로에서 A(88·여)씨가 70대 운전자가 모는 1t 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0시10분쯤에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B(46)씨가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도소방본부 올해 100여명 채용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는 올한해 소방공무원을 대거 채용할 계획이다. 선발 예정인원은 100여명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달말 시험별·직렬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또 3월 28일 필기시험이 일제히 실시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추후 체력시험(4~5월중), 신체·적성검사(5월중), 면접시험(6월중)을 거쳐 선발된다.

또 올해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이 평균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는 등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이상민기자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 3년생
감 평 ………… 3년생
천 혜 향 ………… 4년생
성전온주 ………… 4년생
황 금 향 ………… 4년생
하례조생 ………… 3년생
탱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한 림 종 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귤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유라실생 ………… 1,2,3년생
· 레드향 (무독) ………… 1,2,3년생
· 천혜향 (무독) ………… 2,3년생
· 궁천 ………… 9년생, 1,2,5년생
· 궁천 변이지 ………… 1,2년생
· 하례조생 ………… 1,2년생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한라봉 …………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